

일주문



37기 단기출가학교 졸업식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제 37기 단기출가학교 졸업식을 7월 23일 문수선원에서 실시했다.



2013승시축제 참가자 모집
승시축제 봉행위원장 성문 스님은 7월 30일까지 2013승시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02)986-9575



복지재단산하 시설장 연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은 7월 18~19일 공주 태화산 전통 불교문화원에서 재단산하 시설장연수를 실시했다.



초등 진로교육프로 '복드림'
육수종합사회복지관장 상덕 스님은 7월 23~25일 복지관에서 초등학생 독서·진로교육프로그램 '복드림여행'을 실시한다. (02)2282-1100

“스님 가르침 종단 중흥의 정책 삼을 것”

도건 스님 영결·다비식 7월 16일 해인사서 엄수



前 조계종 원로의원 도건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7월 16일 오전11시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엄수됐다.

前 조계종 원로의원 도건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7월 16일 오전11시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엄수됐다.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영결식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원명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도건 스님은 가야총림에 수심성상을 용맹정진하시어 후학들의 지도에 여생을 바치신 대종사”라며 “그 빈자리가 크지만 슬픔과 애절함을 삭여 종단 중흥의 재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인 밀은 스님은 영결사에서 “도건 스님은 해인사와 대종사 주지를 지내며 대중살림의 모범을 몸소 보였고 원로위원으로 계시 때는 곧은 기개와 위엄으로 한국 불교를 이끄는 사표(師表) 역할을 하셨다”고 애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지난 70년의 성상 동안 실로 치열한 수행자

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고 추도했다.

영결식이 끝난 뒤 도건 스님의 법구는 만장 행렬을 앞세우고 해인사 연화대로 옮겨졌고 제자 스님과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비식이 거행됐다.

도건 스님은 모친을 따라 절에 다니면서 출가의 발심을 품었고 세 차례에 걸쳐 출가에 도전해 결국 지월 스님을 은사로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됐다.

월정사 강원을 졸업하고 한암 스님의 회상에서 참선수행을 시작한 도건 스님은 1965년 범어사에서 광덕, 일타 스님과 함께 동산 스님 회상에서 결사를 단행했으며, 1970년부터 3년 동안 송광사 구산 스님의 문하에서도 결사 정진했다.

종단 혼란기에는 행정력을 발휘해 종단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다. 2, 5, 6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

임한 스님은 1980년에는 종회의장을 맡았으며, 1999년 조계종 총무원장 직 무대행으로도 활동했다. 스님은 성철 스님이 ‘부처님 법값 좀 해라’는 권유를 받아 1980년부터 2년간 해인사 주지 소임을 살기도 했으며, 금성사와 관음암을 창건했다. 대종사 주지 및 조실을 역임하며 후학들을 제철했다. 사찰 주지 소임을 살 때 도건 스님은 절을 보호하는 ‘보사(補寺) 정신을 후학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조계종 원로의원, 명예원로의원을 지내며 수행자로서 평생을 산 스님은 7월 12일 해인사 극락전에서 법랍 70세, 세수 89세로 원적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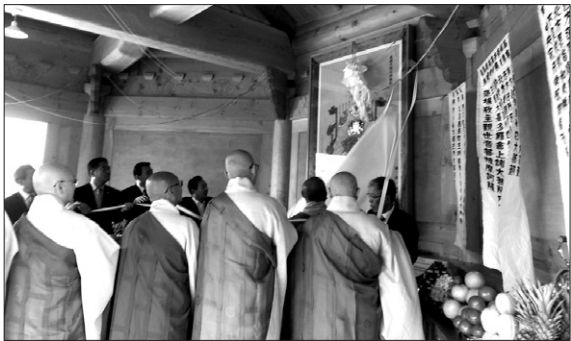
한편, 스님의 49재는 7월 18일 초재부터 6재까지는 대구 금성사, 막재는 8월 29일 합천 해인사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사진=손문철 대구지사장

“호국종찰 의미 다시 새길 터”

논산 개태사 태조 왕건 어진전 낙성



태조 왕건의 한반도 통일 의지가 서려 있는 논산 개태사(주지 양산)에 왕건의 어진이 모셔졌다.

개태사는 6월 15일 고려 태조 왕건(877~943)의 어진(御眞·왕의 초상화)의 점안 및 어진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사진 위>

이날 낙성식에서 주지 양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진 점안으로 위대한 통일을 완수한 태조 왕건의 대업을 이어받아 호국종찰로서 의미를 되새기려 한다”며 “태조 왕건 어진을 봉안한 것은 이곳 개태사가 삼국통일을 이룬 대업을 이어받아 앞으로 10년 안에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부른 희망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점안식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직무대행 선용 스님, 각원사 주지 대원 스님, 새누리당 이인제·홍문표 국회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이기원 계룡시장, 이상구 논산시의회 의장,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 박용필 KBS보도국장, 정병조 금강대 총장, 개성왕씨 종친회 왕윤현 총무이사, 김중국 화백 등 사부대중 100명이 참석했다.

태조 왕건의 어진은 한국화가인 수당 김중국 화백이 제작했다. 개태사는 왕건 어진과 관련해 1993년 개성에서 출토된 왕건 상과 고려사 등 역사서 고증작업을 거쳐 완성했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불교문화재 잠에서 깨어나야

스토리텔링 기업 ‘애기꾼’ 남지심 대표

“우리 국보 문화재 중 77%가 불교문화재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서술한 논문들은 많아도 진정 쉽고 재미있게 우리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은 많지가 않아요.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려면 또다른 변신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문화를 명쾌하게 설명할 이야기꾼이 필요하죠.”

소설가 남지심 씨가 이끄는 불교문화재 스토리텔링 단체 ‘애기꾼’이 문화재청 소속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애기꾼은 남 대표가 이끄는 불교장착교육원 졸업생들로 구성된 기업으로 불교문화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너무 딱딱한 글들은 정보만 있지 감동이 없잖아요. 우리는 연구논문을 기초로 해서 숨은 이야기에 웃을 임하지는 뜻에서 만들어졌어요.”

불교장착교육원 졸업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불교문화 명쾌하게 풀어갈 인재 양성

탈북자녀 등 대중 찾아가는 사회적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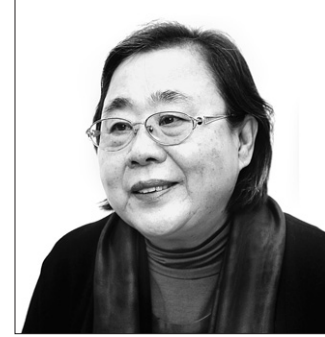
새로운 장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불교문화재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이 작업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오랜 작업을 이어가려면 장기계

획이 필요하죠. 이 기간 동안 작가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수입도 얻어갈 수 있으니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앞으로 ‘애기꾼’은 불교문화행사의 스토리텔링, 서적 발간 등은 물론 스토리텔링 작가 및 문화재 해설사 등의 인재 양성

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애기꾼’은 또한 탈북자녀 자녀들을 대상으로 계절마다 사찰순례도 실시할 예정이다.

불교문화가 잠에서 깨어나



대중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남지심 대표. 그래서 불교적 글쓰기가 가능한 작가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불교장착교육원이 올 8월 2차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요. 불교 문화 작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스토리텔링으로 불교문화재를 이야기화하는 단계를 거쳐 이들이 강의까지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하는 3단계 과정을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정혜숙 기자

지흥 스님 민주본 본부장 재임명



지흥 스님(불광사 회주·사신 오른쪽)이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에 재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18일 총무원 4층 접견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승 스님은 “남북관계가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잘 풀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지흥 스님은 “현재 남북 관계가 많이 답답한 상태에서 재임명이 됐다. 남북 관계가 잘 풀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잘 풀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정혜숙 기자

영통복지관 방과 후 프로그램 진행



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수안)은 7월 17일 이마트 흥덕점과 연계 장애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그루터기’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영화 ‘미스터리’를 관람 저녁식사와 후식 등을 제공받았다.

정혜숙 기자



창립 9주년 기념 및 호장이·취임식
일시: 불기 2557년 7월 15일 오후 7시 · 주최: 대학생 불교연합회 대구경북동문

대불련 대구경북동문회 신임 회장 선출

제7대... 임문우 변호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경북동문회 제7대 회장에 임문우 변호사가 선출됐다.

대불련 대구경북동문회는 7월 15일 동화사 직할포교당 보현사에서 ‘창립 9주년 기념

법회 및 정기총회’를 갖고 임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문우 신임 회장은 선출 직후 인사말에서 “대학생 불자들을 적극 지원해 청년불교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이성 법륜사 일요법회

불이성 법륜사는 태고종 창종주인 대륜스님께서 1946년 금강산 유점사 서울 포교당으로 창건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스님께서는 포교의 일번지를 주창하며 당대의 훌륭한 법사와 포교사를 초빙하여 1950년대 불교계 최초로 일요법회를 개설하였습니다.

덕암스님 당시까지 이어 오던 일요법회가 지금은 맥이 끊어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소납이 2012년 주지로 부임하며 첫 번째 발원한 것이 일요법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이제 법륜사 일요법회가 다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법륜사로 오십시오.

법륜사 ‘일요법회’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매주 주제별로 법석을 여는 일요법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법회안내

- * 첫째주 : 명상기도 법회
- * 둘째주 : 사경기도 법회
- * 셋째주 : 대다라니기도 법회
- * 넷째주 : 천수경 강의

◆ 대 상 : 초, 중, 고, 대, 일반인
◆ 시작일 : 9월 첫째주 일요일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법륜사 3층 대불보전
◆ 문 의 : 불이성 법륜사 종무소 (02-732-2710, 3920)

불이성 법륜사 주지 도학 혜일